

초파일 앞두고 사찰방화 '비상'

잇단 화재 3건 '교계 경악'... 화불 추정 철저수사 촉구

북한산 삼성암·본원정사·화계사



4월 20일 자정 김복구 수유동 소재 삼성암에 화재가 발생, 종각이 전소됐다.

4월 20일 자정경 김복구 수유동 소재 삼성암(주지 세민)과 본원정사(주지 성원)에 이어 22일 새벽 화계사(주지 승산) 등 북한산 일대에 동일한 수법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교계에 비상이 걸렸다.

본원정사의 화재는 대웅전과 나한전 등 목조건축물 내부 50여 평을 태우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삼성암도 범종각 20여평이 전소됐고 화계사의 경우 대적광전과 요사채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원스님이 이를 조기에 발견해 진화됐다. 화계사 측은 이날 화발성 물질을 담은 용기를 수거 전문감식반에 의뢰하고 자체적인 방법반을 편성 도량수호에 돌입했다.

화계사 부주지 성광스님은 "1km 가량 떨어진 사찰 3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번 방화

사건은 모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북한산 일대에 광산도들이 수많은 화불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아 광산도들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연쇄적인 방화는 북한산 일대의 사찰을 초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방화사건은 다량의 인화성물질을 사용해 사찰을 전소시켰다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소행이란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광산적인 이교도들에 의한 화불행위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또다시 기세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광산적인 이교도들은 불교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단배도, 봉축 현수막 훼손에서부터 사

찰방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화불행위를 수년간 일삼아 왔다.

본원정사 주지 성원스님은 "하루빨리 범종단차원의 대책을 마련, 이와같은 연쇄적인 화불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측은 4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매년 5월 이같은 방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 및 신속한 범인 검거 등 관례적인 문제만 촉구했을뿐 종단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번 화불사건에 대해 교계에서는 예전과 같이 경찰측은 정신이상자로 인한 단순방화사건을 처리하려는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사찰측이 화재사고에 대한 방화시설과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석림동문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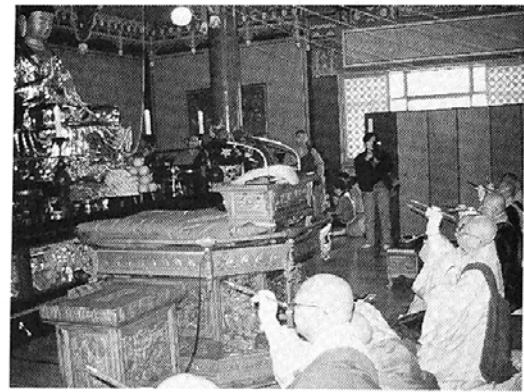
교계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엄중수사와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북부경찰서측은 범인검거를 위해 5백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김준근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1천여단체 가입신청

조계종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한상범)에 가입을 희망한 신도단체는 모두 363개 단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

졌다(4월24일 현재). 사찰신도회는 7백여곳에서 가입신청서를 보내왔다. 이는 전체 대상사찰 3천56개(선학원 및 조계종 미등록 사찰 포함) 가운데 22.9%에 머무르는 것으로 사찰의 소극적 자세를 나타냈다.



법륜사 대웅보전 삼세여래상 점안식이 봉행됐다.

법륜사 삼세여래상 점안 2일까지 '부처님은 누구신가' 특별법회

법륜사 대웅보전 삼세여래상 점안식이 4월 25일 조계종 원로 의원 회합 석주 원담 일타 도견스님을 비롯한 6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삼세여래상은 송광사와 운문

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조성된 것으로, 과거 연등불과 현재 석가모니불, 미래미륵불을 함께 모신 것이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림방장 회광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세여래불 대자불사를 인연

으로 무량부덕을 성취하고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여 마침내 불국토에 함께 살아 지다"고 설했다.

법륜사 회주 현호스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해탈에 대한 변함없는 희망의 표현이 자 부처님과 함께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삼세여래상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법륜사는 삼세여래상 봉안을 기념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부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월간 현해 암도 해인 무비태음 절성님을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성직자대학원 '백지화' 교육부, 불교대책위에 회신

교육부(장관 안병영)는 최근 정부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원회가 교육부와 대동법사실에 보낸 질의사항에 대해 "성직자 양성전문대학원을 백지화하고 종교지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회신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성직자양성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범위내에서 현행처럼 각 종교·종파별로 전통적으로 고유한 관행과 제도에 따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따른 것이며 종교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교 일반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책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교전문대학원 도입여부도 각 종단의 촉박은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10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통폐합 반대" 전승련 대의원회 결의

전승련대학원연합회(회장 부겸)는 지난 17일 불국사승가대학에서 제2차 대의원회의를 갖고, 시설과 확실한 지원체제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 통폐합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승련은 강원 없이 강원도 원주시립이 없어지고 관광사찰 또는 수입사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통폐합 이전에 교육체계 확립과 강원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눔은 연등, 나눔은 마음 봉축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마음 삼매
지극한 마음, 흠여지지 않고 사무치는 마음, 그것이 삼매지 삼매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한아음유선)
합천 한마음선원 법행체회

"아무리 높은 문턱도 넘을수 있어요"

경주 장애인복지 김준엽씨 서울나들이



PC통신 천리안 불교동호회를 통해 만난 장애인복지 김준엽씨와 고연순씨가 4월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PC통신 천리안 불교동호회활동을 통해 불사를 다져온 장애인 복지가 대화에서 만난 서울의 한 회원의 도움으로 4월 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 '나눔의 한마당'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준엽씨가 불교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차량지원과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글을 읽고 하루 자원봉사를 지원한 고연순씨와 만나게 된 것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8시30분 김포공항. 경주에 사는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일터 막대를 들고 자판을 두들기며 동호회

천리안 불교동호회원 도움 '나눔의 한마당' 참여

문학저서 자작시 당선 장애되고 검정고시 도전 활동을 해왔고, 자원봉사자' 고연순씨와는 대화에서 만나기도 하고 전자 메일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나눔의 한마당 행사에서 이들은 하루종일 경사로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이곳저곳 행사

장을 옮겨다니면서도 시종 즐거운 표정이었다. 특히 이날 행사의 하나였던 문학제에 김씨가 출품한 '목련'이라는 자작시가 당선하자 서로 손을 잡고 환박웃음을 지었다.

"장애인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는지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아무리 높은 문턱도 우리는 넘을 수 있거든요. 누나와 같은 분이 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즐거운 하루를 마친 김씨는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감사의 선물로 고씨에게 자작시를 선물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종일 친누나처럼 김씨를 돌봐준 고씨는 "준엽씨가 어엿한 시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원할게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세요"라며 PC통신을 통해 계속 만나자고 약속했다. 한편 김씨는 지금까지의 자작시 4백여편을 모아 시집을 발간할 꿈을 갖고 있으며, 검정고시준비에 여념이 없다.

남수미 기자

교계 재난구조봉사단 6월 발족

산악·해양사고 전담... 등산로 순찰·행락질서 유지도

삼중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눈부신 활동을 벌여 생존자 구조의 일등공신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재난구조대가 불교계에도 오는 6월말 한강고수부지에서 발족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자스무원등호인, 관악산 산악구조대는 지난 21일 복지재단 불교자원봉사센터내 해안·산악

재난구조 봉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창단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계내 해안·산악 재난구조 봉사단의 창단은 현재 관악산과 경남 진해에서 베테랑 산악구조대와 해양구조대로 맹활약하고 있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구조 자원봉사단은 창단후 불교계에 대형재난 발생시 가

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구조구급을 담당하게 된다.

서해 해리호, 충주호 화재, 성수대교 사건 등 크고 작은 해안구조에서 전문 해양구조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해안구조 자원봉사단은 경남 진해를 본거지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해안구조봉사단은 수중환경 보호 작업을 병행, 자연보호에도 앞장선다.

또 산악구조봉사단은 삼중사고 때 민간인 구조대 6명 중 한 명으로 위용을 떨쳤던 김지영씨가 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악산산악구조대를 중심으로 산악사찰 및 산을 끼고 있는 도심사찰의 자연환경보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사전 대비작업 등을 펼친다. 아울러 주말 또는 공휴일에 왕래가 잦은 등산로와 전문 산악등

16일부터 헌혈자비행 실천

생명나눔회 조계사·동국대·동대문운동장서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동국대학교 조계사에서 헌혈행사를 개최한다.

"당신의 헌혈은 생명나눔실천의 지비행"이라는 슬로건 아

래 개최되는 이번 헌혈행사는 오는 24일까지 동국대, 동대문운동장, 조계사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마련된다. 생명나눔실천회는 또 불교종립학교와 연대, 연등축제 기간동안 헌혈행사를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위안부 유엔결의 수용 촉구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운)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의 일본정부는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도 한일협정의 개정을 통해 화해협력에 기반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맛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마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아·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감응」에 활용

재·사·용·가·능

「유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특목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변화된 유등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벌등, 영가등, 전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 다리니버, 교패(불자지침, 교통안전지침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기획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398-6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 난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신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계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령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행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행법사 특별상담!

오령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령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 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묘지상담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이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영당 도에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셔는 영혼의 영당유택이 된다.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영당도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상극력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영명을 기르라는 영혼과 영고 불행을 주는 고통을 지극한 효심으로 영당도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롭게 하면 그 공력으로 금강보광계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환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부산상담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점수 : (02) 3401 - 3259

· 장 소 : 대왕불교불심포교원 (부산광역시 건너편 국민은행)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점수 : (051) 465-5100, 467-5200